

과학탐사
강연회

두번째
에피소드 강연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EXPLORE
YOUR
CURIOSITY

심해 5천미터, 바다에 - 오르다

07.26.(토)

6시~8시 pm



빛과 산소가 없는 바다 속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잠수함을 만들게 했다.
심해는 여전히 미지의 땅이다.
달에 다녀온 우주비행사보다 깊은 바닷속을 다녀온 과학자의 수가 더 적다.
프랑스 유인잠수정 노틸 호를 타고 심해 5000미터 바닷속 세상을 탐험한다.

강연포인트

01

태평양 심해 5천미터를
탐사한 해양학자의
생생한 이야기

02

심해유인잠수정
신카이 6500 탐사
과학자 화상 TALK!

03

심해 생물 /
암석 표본 체험

연사 소개



김웅서 | 해양생태학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물교육과 해양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해양학을 공부했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해양생태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이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생물을 연구하고 있으며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등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과학자 최초로 프랑스 심해유인잠수정 '노틸' 호를 타고 태평양 심해저 5044미터 탐사를 수행했다.

저서! 바다에 오르다, 해양생물의 세계, 바다는 왜?

강연 내용

프랑스 유인 잠수정 노틸은 프랑스어로 앵무조개란 뜻이다.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면 항해지라는 뜻이다. 잠수함의 부력 원리는 겹데기가 격벽으로 나뉘어 있고, 그곳에 기체를 채워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앵무조개에서 나왔다. 김웅서 박사는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의 연구선을 타고 태평양 심해저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과 6주간 태평양을 항해했다. 수심 5천 미터가 넘는 곳을 잠수정을 타고 직접 내려갔다 왔다. 엄청난 수압이 내려누르는 태평양 심해 세계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호기심과 상상력을 떠올려 본다.

문의전화 070.8676.1650

※ 본 강연회는 선착순 소수 강연이며 약 90분 강연과 함께 간단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티켓 등록은 인터파크 티켓 에서 **잃어버린 호기심** 을 검색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웹사이트 (<https://namu.sdm.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dna